

▶ **주생활****한국가계의 주거비 지출에 관한 분석**

-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안 옥 희*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부 가족주거학전공 교수)
 김 현 진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부 가족주거학전공 겸임교수)
 최 현 숙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부 가족주거학전공 겸임교수)

본 연구는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기초자료(raw data)를 이용하여 광역시(특별시 포함)와 군부에 거주하는 한국가계의 주거비 지출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사회인구적 특성이 주거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분석은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산분석,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본 연구의 주거비는 주거 및 광열수도비와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을 합산한 주거 관련소비지출비용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광역시, 군부에 거주하는 원자료 19,283가구 중에서, 광역시는 9,000가구, 군부는 10,283가구이며, 평균 가구원수는 각각 3.1명, 3.0명, 평균 연령은 52.64세, 52.30세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월평균 주거비를 보면, 광역시는 87만원, 군부는 84만원으로 나타나, 광역시와 군부간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른 주거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입주형태(F값 18.068) 및 직업유무(F값 14.984)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시와 군부간의 차이를 보였다.

셋째, 사회인구적 특성이 주거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이용한 계측결과를 보면, R-square값이 0.34~0.36으로 비교적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선형회귀식의 표준화 계수를 살펴보면, 입주형태는 광역시(β :0.130), 군부(β :0.120)가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자가를 소유한 가구일수록 주거비지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수준과 직업유무 변인 또한 광역시(가계소득 β :0.618, 직업유무 β :0.044), 군부가구(가계소득 β :0.634, 직업유무 β :0.02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여, 가계소득 변인과 직업변인에 의해서 주거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혼인상태요인은 광역시 가구(β :0.017)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교육변인 및 성별변인은 군부가구(교육 β :-0.018, 성별 β :0.018)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광역시, 군부간의 주거비에 미치는 영향변인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